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2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 당 (329)	봉 헌 (216)	성 체 (174)	파 견 (441)
---------	-------------	-------------	-------------	-------------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의 드높은 품위를 지켜가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에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 아멘.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7/10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7/17	이 마틸다	김 유스티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7/24	박 니콜라스	김 헬레나	성인복사
7/31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8/7	유 요한	김 유스티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이 조연.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7/3	\$275	88	\$500

축하드립니다.(영명축일: 7 월 26 일)

전 신부님 영명 축일을 축하 드립니다. 영명 축일을 맞아 영육간에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곳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요셉 형제님 과 이영자 자매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김종찬 사도 요한 /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저는 몇년의 공백을 빼고는 지난 40년동안 공직에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골치 아픈 일도 있었지만, 마음은 늘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를 어둠의 골짜기로 밀어 넣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3월 26일에 금융 감독원장 임기 3년을 마치고, 2 개월쯤 되던 어느날, 감사원 모 감사위원이 금품 수수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을 건넌 명분이,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XX 은행을 살려달라고 저한테 부탁해 달라는 것이었고, 제가 바로 그 감사원의 로비를 받고 부실한 그 은행을 살리기위해 불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법당국은 자를 표적으로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그 후 언론에서는 10여일간 톱뉴스로 매일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존재를 잘 모른다고했던 저는 이렇게 쫓길때 주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센바람을보고 무서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할때처럼, 물에빠진저를 건져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언론에 거론되기시작한 후 10일째 날에 결국 사법당국에 감사원 감사위원 XX 사건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신문을 받았습니. 이렇게 신문을 받고 난 뒤에도 언론에서는 "참고인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 등의 보도로 저를 압박해 왔고,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법당국에 갔다오고나서 3~4일이 지난뒤 어느날, 그동안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던 수녀님이 책 한권을 주시면서 꼭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책은 바로 "하느님의 대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바로 사서 보고 저자한테 문자를 보내 만나 뵙자고 청했습니다. 뜻 밖에도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닿아 그날 낮에 바로 만날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소식

한인 공동체 성당 청소 의 날: 7/30/16(토) 오후 3: 00

7 월은 5 번째 주가 있어, 7 월 30 일은 우리 한인 공동체가 성당 청소를 하는 날 입니다. 흔치 않은 봉사의 기회에, 형제, 자매님을 적극 참여하시어, 봉사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협 임원회의: 7/10 (일) 오후 7 시

7 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7 월 10 일(주일) 저녁 7 시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많은 봉사를 해 주신 김 헬레나, 전임 총구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임원 맡아주신, 김 유스티나 자매님, 그리고, 계속해서 수고해주시는 이 요한 형제님과, 이 그레이스, 김 헬레나, 그리고, 이 마틸다 자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들이, 주님의 Calling 에 성심 것 봉사 할수 있도록, 형제, 자매 여러분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29 회 남가주 성령 쇄신대회 :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한다" 7/30/16(8:00 AM -10:00PM), & 7/31/16(8:00AM - 5:30PM)

장소: East Los Angele College, 1301 Avenida Ceasar Chaves, Monterey Park, CA 91754
 등록 참가비: \$25 (예약시 \$20), 문의: 714-539-1211
 강사: 손 광배 도미니코 신부(인천교구 성령지도 신부)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팔로티 수도회) 신 상현 야고보 수사(꽃 동네)

주관: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주일 미사시간 변경 (오전 9:00 시)

한인 공동체 미사시간을 오는 9 월부터 오전 8:00 시에서 오전 9:00 로 변경 됩니다.. 새로운 미사시간에 더 많은 신도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은 평소에 저에대해 아는 바도 없었고, 제가 처한 어려움을 말씀드릴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어젯밤 저와의 만남을 위하여 기도할때 성령께서 마음에 주신 말씀이라며 주머니에서 A4 용지에 적은 기도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지금 네 마음이 슬프도다.
 내가 지금 그 일을 당하고 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답답하도다.
 그러나, 너는 걱정하지말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회개하라.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나를 잊고 살았으니, 너는 이제 나를 온전히 믿을지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제 그 일은 잠잠해 질것이다.
 너는 아무말도 하지말고 잠잠히 있을 지이다.
 그리하면 아무도 너에게 무어라 하지 않을것이라.
 너는 기도하며 조용히 있을지이다.
 그리하면 너에게 아무일도 없을 것이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미사때 참회 예식을 통하여 '고백기도'를 하면 죄를 용서 받을수 있나요?

소죄의 경우는 참회예식을 통하여 용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죄의 경우는 성체를 모시기전에 반드시 고해 성사를 받아야합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 [미사전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